

배드민턴 안세영 시대 활짝 ‘광주코리아마스터즈’女 단식 우승 우상 성지현 제압…4번째 만남서 V



안세영

배드민턴 여자단식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17·광주체고)이 ‘최강’ 성지현(28·인천공항공사)을 꺾고 2019 광주코리아마스터즈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24일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300 광주코리아마스터즈 여자단식 결승전에서 성지현을 2-0(21-13, 21-17)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안세영이 우위에 있으나 성지현과 상대전적은 3전3패로 열세였다. 그러나 4번째 만남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기 초반 성지현에게 밀렸지만, 중반 이후 집중력이 살아나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기어코 승리를 챙겼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시즌 5번째 우승을 마크했다. 또 자신의 우상인 성지현을 압도하면서 명실상부 한국 여자단식 간판으로 자리 잡았다.

경기 후 안세영은 “(성)지현이 언니한테 3전 전패였는데, 이번에 이겨 기쁘고, 또한 광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더 좋은 것 같다. 초반에 끌려갔는데, 코치님들이 조금 더 집중하라고 주문해서 이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세영은 2017년 국가대표선발전을 통과, 시니어 국제무대 데뷔 2년 만에 세계랭킹 10위로 오르며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절친 설리에게로 간 구하라

사망 하루 전 SNS에 “잘 자” 인사
평소 악성댓글 고통·우울증약 복용
경찰 “현장감식 통해 사인 조사중”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24일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월14일 가수 겸 연기자 설리가 25년의 짧은 생을 마감한 뒤 42일 만에 전해진 또 다른 스타의 안타까운 소식에 팬들과 연예관계자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구하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밤 “정확한 사인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구하리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하리는 하루 전인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잘 자”라는 인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구하리의 한 측근은 이날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악성 댓글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자괴감 등으로 우울증약을 복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최근 활동을 재개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예전처럼 잘 지내려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주위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배려해

일상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며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구하리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와 폭행 시비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올해 5월에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구하리의 측근들은 이후 그의 주변을 살피며 예의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여동생처럼 아끼며 평소 절친하게 지냈던 설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더욱 신경을 기울였지만 결국 구하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측근은 “연락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있어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있게 두지 않으려 여러 사람이 살펴왔는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구하리는 9월 모든 약재를 뒤로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현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3일 솔로 데뷔 싱글 ‘미드나이트 쿼’을 발표했다. 다음날부터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투어를 돌며 팬들과 만났다. 19일 일본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그의 마지막 무대는 23일 현지 방송된 CX채널의 음악정보프로그램 ‘튠(Tune)’이었다.

구하리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합류해 ‘룩 유’ ‘굿데이’ ‘프리티 걸’ 등 히트곡을 남겼다. 2015년 솔로로 데뷔한 그는 SB S 드라마 ‘시티헌터’를 통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수 겸 연기자 구하리는 24일 세상을 떠나기 전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다. 그래서 이날 그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팬들에게 안겨준 충격은 더욱 컸다.

스포츠동아DB

‘한화 마운드의 미래’ 김성훈 안타까운 실족사

2017년 한화 입단…열정 대단했던 노력과 아버지 ‘KIA 김민호 코치’에겐 속깊은 효자

한화 이글스의 미래로 꿈꿨던 영건 김성훈이 21세, 꽃다운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 야구계가 비탄에 빠졌다.

한화 구단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성훈은 23일 오전 5시20분께 광주 서구의 한 건물 9층 옥상에서 7층 테라스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토대로 발을 헛디뎈 추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다. 왜 옥상에 올라갔는지 등 정확한 사연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민철 단장과 한용덕 감독은 이날 오후 소식을 접하자마자 광주 서구 선한병원에



한화 김성훈

2017년 2차 2라운드(전체 15번)에서 한화의 지명을 받았다. 입단 2년째인 2018시즌 10경기(27.2이닝)에서

차려진 빈소를 찾았고, 선수단은 하루 뒤인 24일 단체로 조문에 나섰다.

김성훈은 김민호 KIA 타이거즈 수비코치(50)의 아들로 야구인 2세대. 잠심중-경기고를 졸업하고

3.58의 성적으로 존플레이오프(준PO) 엔트리에도 이름을 올리며 잠재력을 뽐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선수였다. 다소 수줍어 보이는 인상과 달리 야구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눈을 반짝이며 자신 있게 자기 목소리를 냈다. 비록 올 시즌 성적만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발전 가능성과 열정은 모두가 인정했다. 당연히 소속팀 코칭스태프와 선배들에게도 사랑받는 후배였다.

효심도 깊었다. 같은 야구인으로서 많은 것을 공유하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길 주저하지 않았다. 김성훈은 “아버

지께서 ‘잘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 ‘못 해도 되니 준비 잘하고 아프지만 말라’고 하시니 오히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야구할 수 있다. 그게 내게는 정말 큰 힘”이라고 고마워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김성훈 선수는 성실한 야구선수이자 팀의 일원으로 팀과 동료 선수들에게 인정받았고, KBO리그의 재목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였다”며 “김성훈 선수가 팬들과 동료들의 마음에 영원히 간직되길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호골 제조기’ 손흥민, 새 감독 무리뉴에게 강렬한 눈도장

〈새 홈구장 개장 1호골·새 감독 무리뉴 체제서 1호골〉

웨스트햄전 1골 1도움 최고 평점
무리뉴 감독에게 부임 첫 승 선물
“첫 경기부터 선발…믿음에 보답”

손흥민(27·토트넘)이 조제 무리뉴 감독(56·포르투갈)과 함께한 첫 경기에서 에이스다운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올림피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풀타임을 뛰며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0-0으로 맞선 전반 36분 문전 왼쪽에서 펠리 알리의 패스를 강력한 왼발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았고, 이어 전반 43분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로 루카스 모우라의 추가골을 도왔다. 3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9호골(리그 4골·챌피언스리그 5골). 도움도 5개가 됐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의 썬기골까지 더해 3-2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는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후 첫 경기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토트넘은 20일 마우루시우 포제티노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고 곧장 무리뉴 감독의 선



토트넘 손흥민이 23일(한국시간) 열린 EPL 13라운드 웨스트햄전에서 선제골로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조제 무리뉴 감독에게 첫 골을 선사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1골1도움을 기록했다.

런던 AP뉴시스

임을 알렸다.

관심을 모은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에서 가장 먼저 눈도장을 받은 이는 손흥민이었다. 경기 내내 공격을

이끌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팀내 최고인 평점 8.54점을 부여했다. 또 손흥민은 구단이 발표한 이달의 선수상 투표에서 팬 투표 중 91.5%의 표를 받으며 10월의 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두 달 연속 수상이다. 또한 새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의 개장 첫 골과 이번 시즌 EPL에서 팀의 첫 골을 뽑았던 손흥민으로선 무리뉴 체제에서의 첫 골 주인공이라는 의미까지 더했다. 다음은 경기 후 손흥민과 일문일답.

-경기 소감 부탁드립니다.

“우선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하게 돼 선수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중요한 상황에서 승리를 거둬 선수들의 자신감이 플러스됐다.”

-무리뉴 감독 부임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많이 없다. 5년 반 동안 포제티노 감독님 밑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일단 무리뉴 감독님이 새로 오시면서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려 하고 있고 선수들

도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오늘 경기장에서 보셨다시피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감독님도 그런 노력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고 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 후 많이 칭찬했는데.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감독님이 첫 경기부터 믿어주시고 출전시켜주셨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부분이 잘 때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토트넘 이달의 선수상을 두 달 연속 받았다.
“항상 많은 팬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항상 못할 때나 잘할 때나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고 계신다. 선수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나에게서 그분들이 거의 전부가. 어려울 땐 힘내라는 메시지들, 잘하고 있을 땐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을 항상 많이 보내주시고 항상 나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다. 팬들을 실망시키드리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고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런던 | 허무티통신



Lotto 6/45 886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9년 11월 23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9	23	28	37	42	45	2

1등 총 당첨금 □20□822□5006□5002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기준이며, 당첨 개입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개입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7	2,974,643,786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 2등 보너스 일치	59	58,820,64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 일치	2,140	1,621,69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 일치	109,766	50,000 원
5등 3개 숫자 일치	1,768,281	5,000 원

*당기 당첨금은 1회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내국 공제 전)

· 동행복권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dhlottory.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 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난번 복권 구매는 중독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행불안센터 080-850-0500 www.clear.dhlottory.co.kr